



남원시·사천시 소상공인연, 고향사랑 상호기부

사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남원시청을 방문해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와 사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도준)가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각 300만원씩 모아 이루어진 상호기부금 전달이다. 이번 상호기부는 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지역경제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와 사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도준)는 "이번 상호기부로 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더욱 활성화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최경식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동참해 주신 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두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는 지난 6월 13일 사천시청을 방문해 사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비전대, 유학생에 '따뜻한 밥 사랑' 나눔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7일 (유)저신한(대표이사 박진영)의 후원을 받아 유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밥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병훈 총장, 이효숙 국제교류원장, 비전한국어센터 유학생 30여 명을 비롯해 행사를 후원한 박진영 대표와 이형권 전주대 특임교수(칼럼리스트)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여름철 보양식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의 따뜻한 옛 풍습을 전하며 삼계탕을 나눴다. 또한 이번권의 물놀이 사용 티켓도 선물을 줬다. 박진영 대표는 "유학을 통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대견하다"며 "지금 현실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격려했다. 미얀마 유학생 루루영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쥐 정말 감사하다"며 "오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준 선배님처럼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국제교류원은 현재 749명의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입학부터 교육, 졸업후 취업지도까지 단계별 유학생 지원관리체계를 갖춘 더움(THU UM)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정은성 기자



부인회 무주군지회, 좋은 농식품 구매 소비자 교육

한국부인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부 무주군지회(회장 마경옥) 외 임원40명에서는 지난 6일 오후 1시, 무주군 여성센터 대회의실에서 윤석화 강사의 좋은 농식품 구매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양곡 표시제, 소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 계란 이력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으로 소비자들이 좋은 농식품 구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마경옥 한국부인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지회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이 좋은 농식품을 구매 할 수 있는 배움과 잘 알고 실천하며 주위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홍보 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 이 교육을 진행 하였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일상 속 생활불편 사항 '똑딱' 해결

남원시 복지기동대, 지역보호체계 구축...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남원시는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용을 통한 점복형 지역보호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남원시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 복지기동대는 23개 읍면동 총 289명의 기동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민관 협동의 실질적 참여를 촉진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등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복지기동대 사업은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지원사업과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다. 읍면동장과 함께하는 1일 1가구 소풍행진, 방문상담 등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들에게 도배장판, LED등 교체, 경사로 및 안전난간대 설치, 방충망 교체 등을 해주어 안전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자립하여 지역 내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7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가구 등 42가구에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해 주었으며, 37가구에 1백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지원 사례 중 단열이 되지 않고 습기가 많은 집안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벽지가 다 뜯어져 건강 문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대상자의 집을 단열 및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로 바꿔 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소방서, 신입 의용소방대장 임명장 수여식

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7일 부안소방서 3층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에서 신입 의용소방대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부안소방서장과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대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를 통해 꽃다발 전달식과 기념 촬영으로 진행했다. 소철환 서장은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에 입대하신 김중우 대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한다"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군민을 위해 많은 봉사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 진안 용담가족테마공원, 시설정비공사 마쳐

용담가족테마공원(진안군 송풍리 1221-6)이 시설 정비 공사를 마치고 방문객을 맞이한다. 용담가족테마공원은 용담댐 인근에 있어 용담호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비 공사는 공원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원 내 분수대와 조명 시설 정비에 집중했다. 노후 된 분수대를 보완해 수질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수질 청결도를 높였으며 조형물에 재도색을 해 시각적 아름다움을 높였다. 또한 공원 내 주요 구간의 조명시설을 현대화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도를 강화했다. 더불어 테마공원 내 설치된 노후 정자를 보수기능이 첨가된 오일스테인(oil stain) 보수작업을 실시해 시설물의 보존력을 높였다. 이번 정비공사로 인해 공원을 찾는 방문객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방문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철민 용담편장은 "이번 시설 정비를 통해 용담가족테마공원이 더욱 많은 아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폭염대비 얼음물 나눔 행사

남원의용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공은태) 관정회가 폭염에 지쳐있는 공설·용남시장 상인들에게 얼음물 무료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남원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서 실시된 이번 활동은 계속되는 폭염특보 발령 확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자 증가를 예방하고 더위에 지친 상인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는 6개대 138명이 조를 나눠 얼음물 500개를 무료 배부했으며, 폭염취약시간(오후 2시~5시)동안 상인들에 대한 폭염안전지킴이 활동을 병행했다. 공은태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폭염에 지친 우리 상인들에게 얼음물을 제공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다"며 "온열질환자 안전 확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기자

## 장수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위생·청렴교육 실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관)이 지난 6일 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유·초·중·고교 조리실무사 4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조리실무사 식중독 예방 위생·청렴교육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중독 예방 및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조리실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한 연수 시작 전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교육도 가졌다. 강사로 초빙된 유수진 군산육용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실제 식중독 및 이물사고를 소개하고 급식관계자의 개인위생부터 검수 식재료 관리, 배식, 청소 및 방역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정별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위생관리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에 큰 호응을 얻었다. 추영관 교육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힘쓴 급식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 앞으로도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 학생들에게 투명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도동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재난대응 안전교육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난 6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84명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와 경찰서를 연계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재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 및 건강 관련 교육 △경찰서 보이스 피싱 예방 절도 예방(차량탈취, 빈집탈취 등),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 △노인일자리 직무 관련 안전교육 및 폭염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참여한 어르신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여름철 건강관리와 보이스 피싱 예방, 절도 예방 그리고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을 자세히 배울 수 있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농협, '2024년 신규조합원 교육' 실시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은 7일 무주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조합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규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주농협의 조직 및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구제교육원 기영운 원장을 초청하여 '신규조합원의 역할과 자세, 농협사업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교육 및 소풍의 시간을 가졌다. 무주농협 박동열 조합장은 "무주농협 가족이 되어 주신 조합원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무주농협 임직원은 협동조합 정신으로 일체단결하여 농가소득 제고 등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조합원님께서도 우리농협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협사업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청하면 주민자치위원회 8월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 7일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사회적 나눔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의 길장 나눔 행사에 대해 논의했으며, 처서(8월 22일)를 기점으로 밤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계획하고 김장을 위한 배추와 무 식재 시기를 오는 27일로 결정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직접 기른 배추와 무를 수확해 정성껏 김치를 담아 관내 경로당, 독거노인 등 사각사각에 놓인 소외계층 300여 세대에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자 주민자치위원장은 "청하면 주민자치와 지역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논의한 사업 추진에 향후 위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양유미 청하면장은 "청하면 주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부안해경, 미래 유망직종 '탐정업' 직장교육 진행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지난 6일 대강당에서 탐정업의 가치와 전망을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교수를 통해 탐정업의 현재와 미래, 탐정업의 경제적 가치와 전망, 해양경찰 경력에 활용된 탐정업 전문화 전략, 경찰관으로서 탐정업으로 경력 전환 순으로 진행했다. 탐정 직업은 현재 관련 법률이 미비하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정식 직업으로 되어있지 않은 만큼 향후 정식으로 법이 제정되고 관련 기능들이 갖추어지면 유망 직종으로 경찰 업무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퇴직 후 제2의 인생 준비도 가능하다. 서영교 서장은 "탐정 업무에 대해 직원들이 알게 되었고 정식 법제화를 통해 민간 조사 분야가 확대되어 경찰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